

# 농식품부, 벼 재배 왕우렁이 피해 예방 강화

## 전남 영암서 개체수 감소·월동 방지 시연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전라남도, 농촌진흥청과 함께 5일 전남 영암군 학산면 용소리 일원에서 벼 재배 농업인 피해 예방을 위한 왕우렁이 월동 방지 및 개체수 감소 대책 시연회를 개최했다.

진흥청 전문가의 기술 설명, 농업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유기농 벼 재배 농업인들이 다수 참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월동 개체 특성을 고려한 사전 관리와 예방 기술 확산이 피해 감소의 핵심”

이라며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왕우렁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 관계자는 “논 깊이갈이 효과 사례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이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며 “2월 말까지 논 말리기 캠페인과 함께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이번 영암 현장 시연회를 계기로 다른 시·군으로 왕우렁이 피해 예방 대책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농식품부 제공

왕우렁이는 잡초 제거 효과로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서 활용돼 왔으나, 최근 기후 변화로 겨울을 난 개체가 증가하면서 모내기 이후 어린 모를 갉아먹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024년 전남 지역 왕우렁이 피해 면적은 1,593헥타르로, 해남군(591헥타르), 진도군(253헥타르), 고흥군(170헥타르) 등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전라남도는 피해 우려 농지를 대상으로 겨울철 중점 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시연회에서는 논 깊이갈이 장비 및 작업 과정 시연, 농촌

#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완주군, 협약 체결

## 전국 공원묘원 조화근절까지 최선 다할 것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서용일)는 지난 13일 전북 완주군청 전략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천 및 친환경 추모 문화 정착을 위한 ‘공공장사 시설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완주군, 완주군시설관리공단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완주군은 ▶공공장사시설 내 생화 사용 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 ▶군민 인식 변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지속적 추진 등을 진행한다.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은 ▶공공장사

시설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 및 판매 근절 등 적극 동참 ▶공공장사시설 이용객 대상 홍보 등을 한다. 자조금협의회는 ▶공공장사시설 내 생화 현화를 위해 생화 공급 협력 및 지원방안 마련, ▶생화 현화 캠페인 실시 및 대국민 홍보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완주군은 “장사시설 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생화 현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군은 시설 관리와 운영을 맡은 시설관리공단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과 캠페인을 통해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고인에 대한 마음을 전하는 친환경 추모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은 ‘가짜 꽃 플라스틱 조화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생화 현화 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 구리도매시장 실내지도 서비스 실시

구리농수산물공사(사장 김진수, 이하 공사)는 주식회사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 이하 카카오)가 협력하여 카카오맵을 통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구리도매시장) 실내지도 서비스를 2월 9일부터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도매시장 특성

상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구조로 길 찾기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공사 내부 아이디어 발굴 조직인 ‘통통발굴단’의 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지난해 8월 카카오를 직접 방문 등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구현됐다. 구리도매시장 카카오맵 실내지

도는 도매시장 내부 구조와 점포, 주요 시설, 화장실 등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중도매인 점포 정보를 카카오맵에 등록하여 온라인 홍보 채널을 확보하고 실내 로드뷰 도입 검토 등 단계적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실내지도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etimes.com

# 농진청,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출범

##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체계적으로 관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국립축산과학원은 2월 5일 본원 강당에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는 2024년 국립축산과학원이 국내 처음 마련한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지속적으로 심의·보완하기 위해 구성된 상시 전문가 협의기구다.

사료 영양표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반려동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산업과 학술 분야에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영양표준 1판(2024년)에 수록된 권장 영양기준을 재평가하고, 국내 실증 정보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과

학적 개선 체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27년까지 영양표준 2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영양표준 1판에 포함되지 못한 아픈 반려동물을 위한 질환관리사료 기준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국내

사료 유통 현황과 다빈도 질환, 임상적 우선순위, 국내 검증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안에 질환 유형별 반려동물 사료(가칭 반려동물 특수목적 영양 사료) 표준 제조기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은 지난해 9월 ‘사료관리법’하위 고시인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일 부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유예기간 3년을 거쳐 2028년

9월부터 반려동물 사료 표시제도와 연계해 반려동물완전사료 표준 제조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 위원회 출범은 국내 반려동물 사료 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반려동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국가 영양표준 연구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etimes.com



▲농촌진흥청 제공

# ‘대서·홍산’ 외통마늘 생산...봄 파종으로 가능해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우수한 ‘대서’, ‘홍산’ 씨마늘 생산의 한 방법으로 봄에 주아(구슬눈)를 파종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마늘은 보통 쪽마늘(영양번식)로 번식해서 바이러스가 누적되기 쉽다. 마늘종(꽃대) 끝에 달린 주아(구슬눈)를 심으면, 외통마늘이 나와 상대적으로 바이러스가 적은 씨마늘을 생산할 수 있다.

‘대서’, ‘홍산’처럼 작은 주아(구슬눈)가 달리는 품종은 가을에 파종할 수도 있지만, 봄 파종도 가능하다. 봄에 파종하면 가을 파종보다 마늘 크기는 작지만, 3~3.5개월



▲농식품부 제공

만에 외통마늘을 생산해 밭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봄철 ‘대서’, ‘홍산’의 주아(구슬눈) 파종 시기는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2월 하순부터 3월 상순이 알맞다.

파종할 때는 흙이 뿌리, 줄뿌림, 모아심기 등 농가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되, 땅이 건조해 지지 않도록 파종 직후 물을 충분히 짙게 잘 드도록 관리한다.

수확은 5월 하순~6월 상순, 잎이 2분의 1 정도 말랐을 때가 알맞다. 수확 시기가 늦어져 잎이 너무 마르면, 수확할 때 줄기가 끊어져 작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한편, 여름에 수확한 ‘홍산’ 주아(구슬눈)를 봄 파종을 위해 저장할 때는 냉난방을 하지 않은 일반창고와 4도(°C)에서 저장하는 것이 수확률이 높았다.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기반 마련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고 전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국 단위의 비대면 거래가 가능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그동안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한시 지정(’23.10~’27.10월)되어 농

림축산식품부의 지도·감독 하에 aT가 운영했으며, 이번에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대한제분

# Enriching your life

대한제분은  
지난 70여 년을 쉬지 않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고객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변화와 혁신을 즐기며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객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